

## ‘200대 체벌’ 교사 처벌 받을까

### 피해학생 4명 학부모 고소...구속여부 관심

과다체벌로 말썽이 일어난 대구 수성구 ○고교 3학년 피해 학생 4명의 학부모들이 23일 폭력을 휘두른 교사를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고소장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지난 14일 ○고교 박모 교사로부터 심각한 상처를 입을 만한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박 교사의 처벌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고소장에 첨부한 별도의 의견서에서 “아이들에게 이번 체벌이 입힌 육체적·정신적 상처가 너무 크다.”면서 “학교폭력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과 정의로운 사회풍토를 만들려는 의지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고소로 과연 체벌을 한 박 교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벌이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자신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사를 구속수사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 행정심판담당 박선아 변호사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처벌이 가뻐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